

나비 (Butterfly)

시놉시스

무력한 직장생활, 자신의 이상과 동떨어진 일상을 살고 있는 김구만은 자신의 직장인 미국계 식당에서 홀로 마감, 정산을 하던 중 강도를 당하고 오줌을 흥건히 지린다. 평소 겁이 많은 구만으로써는 두려움을 안고 살기 충분한 사건이었기에 경찰에서 아무런 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얼마후 당황스럽게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도단에게 당하며 또다시 오줌을 지리게 되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강도단 검거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희박하기만 하다. 강도단의 보복이 두려운 구만은 어렵פות이 짐작이 가는 인물이 있지만 공포와 트라우마에 휩싸여 입을 달아 버린다. 구만은 결국 2 차 강도사건 이후 주위의 경멸어린 시선과 자괴감으로 말미암아 사직서를 내고 집에서 은둔하며 자기 자신을 자학의 늪으로 빠뜨리는 히키코모리가 된다. 얼마 후, 구만의 입막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강도단이 구만의 집에까지 침입하기에 이른다. 일하던 식당의 옛 직원이었던 강도의 정체를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구만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범행 당사자의 방문에 비굴한 울음마저 터뜨린다. 이전부터 구만의 비굴한 삶과 태도에 경멸감을 느끼고 있던 강도가 구만에게 ‘남자’로서의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 깨우침의 주먹을 날리게 되나 구만은 뒤통수를 잘못 얻어 맞고 한방에 기절하고 만다.

병원에서 치료와 회복을 받은 구만, 자신의 심정에 묘한 변화가 있음을 깨닫는다. 구만은 더이상 공포심을 느낄 수가 없는 홀몬 이상현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와 자신의 삶 등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 180 도 이상 바뀌어 더이상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 대범한 사람으로 탈바꿈 된다. 강도사건의 미결 처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소환된 경찰서 주차장에서 강도단의 주동자였던 옛 직원 크리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의 집으로 초대되면서 이전의 앙금을 풀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그곳에서 자연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듯한 중남미 이민자 거리의 자유로움과 인간다움에 매료된 구만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고, 춤과 여흥, 그리고 여자들을 만나며 겪는 그들의 문화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마놀라라는 스페인식 이름으로 불리게 될 정도로 새로 경험하는 매력적인 사회에 잘 적응해 간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만끽하던 중,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정육점의 주인장이 ‘눈에 감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며 권유한 마약 배달일에 손을 대게 되고, 구만은 그런 범죄행위에서 느끼는 일종의 야릇한 흥분에 의아해 하면서도 점점 범죄의 성공을 즐기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주인장의 지도로 사격술과 전투기술 등을 연마하며 또다른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들던 구만에게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된 큰 마약 배달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카르텔의 상당량의 물건을 미국으로 배달해 오던 중, 구만의 새로운 삶에 끼어들어 있던 구만의 전처와 그녀의 새 애인인 구만의 친구 크리스가 강도로 위장하고 나타난다. 중남미 이민자 거리의 상대 조직인 살바도르 갱과의 계획 하에, 구만을 회유하여 함께 물건을 가로채자고 권유한다. 결국 권유에 응하지 않는 구만과 총격전을 벌이고, 치명적 상처를 입은 구만을 사막에 버려둔 채 물건을 강탈해 사라진다. 멀리서 배달 과정을 감시하던

카르텔의 인원에게 구만은 구조되어 생명은 구하나, 배달 건의 실패로 고문을 당하고 멕시코 카르텔의 미로감옥에 감금 된다. 이후 구만의 애인, 애술리가 담보물로 감금되고 구만은 한번의 기회를 부여받고 풀려나게 된다. 물건을 되찾고 배신에 대한 복수를 위해 중남미 이민자 거리로 돌아온 구만은 정육점 사장의 도움으로 크리스와 전처, 그리고 살바도르갱들이 은신하고 있는 은거지를 찾아 중무장 한 채 쳐들어간다. 처절한 전쟁을 치르며 결국 살바도르갱을 전멸 시키자, 곧바로 자신의 감시하던 멕시코 카르텔 인원들이 뒤따라 들어와 살바도르 갱 보스와 크리스 등을 고문하여 '이 모든 살육의 피바람이 정육점 주인장의 모략에서 시작된 것'이란 진술을 받아 낸다. 카르텔 인원들은 배신의 댓가로 살바도르 갱 보스는 물론, 크리스와 전처, 그리고 친구들 모두를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처형시켜 버린다. 새로운 삶의 터전과 사람들을 모두 잃어버린 처절한 심정을 가누며 구만은 결국 카르텔 인원 마저 전멸시켜 버린다. 전쟁도중 입은 여러군데의 총상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육점으로 달려간 구만이 주인장 마저 가차없이 처단해 버리게 됨으로써, 구만을 제외한, 사건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다.

자신의 등장과 함께 활성화 된 본격적인 마약 범죄와, 그에 따른 음모와 배신 등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듯 했던 타운의 삶 전체가 초토화 되는데 대한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진 구만이 (애술리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위해 멕시코 카르텔로 차를 몰아간다. 온몸에 난 총구멍에서 울컥거리며 쏟아지는 핏덩어리.

나비가 병실로 날아든다. 식물인간이 되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던 (강도 사건 이후의) 구만, 생명 유지장치를 떼어 내고 장기를 기증하게 된다. 안구를 기증받는 한 남미 여인의 뜻모를 눈물. 과연 구만이 마놀로의 꿈을 꾀 것인가, 마놀로가 구만의 꿈을 꾀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구만과 마놀로의 꿈을 꾸며 날아다닌 것인가.